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NNKUMw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Newsletter

September, 2017



photo: 델라웨어 연합회 선교학교

1.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의 연합회 선교학교
2.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의 연합회 선교학교
3. 델라웨어 연회 한인여선교회의 연합회 선교학교
4. 종교개혁 500주년: 여성, 평신도에게 길을 묻는다
5. 한국여선교회 역사 시리즈
6. 독서프로그램
7. 연합감리교의 여선교회의 4년차 대회
8.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2017년 선교학교(Mission u)를 다녀와서

제가 권오연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교학교에 관해 소개를 받은 지는 몇 년이 되었지만, 여건상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선교학교에 참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올해는 토요일 하루만 진행되어서 참가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전체 선교학교 프로그램은 2박 3일 동안 진행되며 영어반, 한국어반, 그리고 스페인어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반은 한국교회의 상황에 맞추어 올해에는 토요일 하루만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7월 15일 아침 일찍 교회에서 출발하여 선교학교가 열리는 코네티컷의 Stamford 에 있는 Stamford Hilton 호텔에 도착해서 보니,

벌써 뉴욕 지역의 여러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이 와 계셨습니다. 선교학교는 언어별뿐 아니라 주제별로도 여러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한국어반은 영성 훈련 중 “언약 공동체의 삶”이라는 주제로 최희덕 목사님의 인도 아래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최 목사님께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눠 주시면서 각자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스스로 써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재에 있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공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해를 흔들고 도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새롭고 더 멋진 곳으로 밀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삶에 관한 영성 훈련은 1)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2)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신실하고 순종적인 언약 백성, 3) 언약을 지킬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국가, 4)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은총으로 충만한 언약 공동체 등 4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3 번에 걸쳐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영성 훈련은 미리 관련된 성경 말씀과 교재를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의 참 의미를 찾고 이를 현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특히 그 언약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사역을 포함하여 오늘날의 현실에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각자 생각한 것을 그룹별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흘 분량을 하루에 다 배우려고 하니 시간이 촉박하여 토론하고 발표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긴 했지만, 이 훈련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며, 또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기쁨과 순종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언약공동체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성훈련 외에 다른 지방회에서 오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원래 2박 3일을 다 참가하면 예배도 같이 드렸겠지만, 한국어반은 토요일 하루만 하는 관계로 다른 지방회에서 온 분들과 함께하는 기회는 점심때 진행된 UMW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각 지방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각각 "사랑의 제자 공동체를 위해 씨심기" 라는 주제에 맞춰 아주 창의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와서 발표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 합세해서 재미있게 준비한 지방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피부색이나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마음은 다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수 있도록 김밥까지 준비해 오신 연합회 임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배움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돌아왔습니다.

(글: 정계순, 미드허드슨 한인 연합감리교회, 뉴욕연합회, NY)



> English



2017 Mission u

It has been several years since I heard about "Mission u" from Ohyeon Kwon, my Pastor's wife. It wasn't easy for me to arrange my schedule to attend a multiple day program including weekdays as working mom with a kid. Therefore, I was very happy when I found out that a 1-day course was available this year. "Mission u" is a 3-day program and offers multiple sessions in 3 different languages - English, Spanish, and Korean. This year, the Korean session was adjusted to cover one of the spiritual growth studies in one day to accommodate many Korean churches' preferences.

Early in the morning on July 15th, we met at our church parking lot and drove to the Stamford Hilton

Hotel in Stamford, Connecticut where "Mission u" was taking place. When we got there, the classroom was already crowded with many sisters and some brothers from several Korean churches in the New York Conference.

"Mission u" offers several categories of studies such as Spiritual Growth Study, Issue Study, Geographic Study, and more. Among those categories, I attended "Spiritual Growth Study: Living as a Covenant Community," which was held in Korean and led by Rev. Hee Duk Choi, a wonderful female leader.

At the beginning of the study, Rev. Choi handed out a sheet of paper and asked us to write down our goal for this study. I found that this phrase from the textbook tells me why continuous study for spiritual growth is needed.

“Through the course of this study, each person and the group will be challenged to think in new ways and examine and question their own understandings and beliefs.”

The “Living as a Covenant Community,” study course consists of 4 sections:

- 1) God as Covenant Maker: The Covenant of Care and Grace,
- 2) Covenant-Keeper God and Faithful and Obedient Covenant People: The Covenant of Redemption & Safety and the Covenant of Blessing,
- 3) God the Equipper and God’s Covenant Nation: The Covenant of Guidance and Law
- 4) Covenant-Fulfilling God and Grace-Filled Covenant Community: The Covenants of Eternal Rule, Everlasting Friendship, and the Everlasting Covenant.



The class activities were mainly small group discussions, sharing personal experiences, and role-playing scenarios. After we read the Bible and the textbook that are related to each topic, we discussed God’s covenant, and as humans created in God’s image and likeness, how we can serve God’s intention for the community. We also shared personal experiences about the joy of reflecting God’s nature and the difficult task of obedience amid fear and crisis. For more effectiveness and better spiritual growth, it was recommended to read the textbook and study biblical passages in advance. I confess that I didn’t do my homework well.

Even though we didn’t have enough time to discuss all the topics in depth due to time restrictions, through this study I learned about how the covenants reveal God as the Covenant maker, keeper, and equipper. From this study, I also learned the connection between these covenants and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and how the life and ministry of Jesus represents the fullest articulation of God’s relationship with the covenant community/humanity through the Everlasting Covenant. This study inspired me to think deeply about how to be involved in covenant communities —the local church, United Methodist Wome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ecumenical organizations, etc.

In addition to the spiritual growth study, I had an opportunity to meet many UMW members from other districts. If we had stayed for the whole 3 days, we could have worshiped and prayed together but UMW Time during Saturday lunch period was the only chance to meet them. Members from each district presented what and how they were doing to accomplish the mission of "Planting Seeds for the Beloved Community of Disciples," the main theme of 2017 “Mission u”. Children and youth groups also participated in this show time. Through UMW Time, I was even more convinced that regardless of language, race, or culture, we are all the same Christians who want to learn how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all our soul, all of our minds, and all of our strength. At the end of the day, we all were full of joy and happiness.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NYC KUMW Network committee members for organizing this wonderful day and their devotion to the covenant community.

(Written by Gyesoon Chung, Mid Huds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NY)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북조지아 선교학교

유독 많은 비가 내렸던 조지아의 7월 . 이번에도 어김없이 해마다 열리는 선교학교가 올해도 북조지아 지역을 달구었다. 7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진행된 2017년 선교학교는 올해는 조지아 북쪽의 훌륭한 경관을 자랑하는 토코아 침례교회 수양관 에서 있었다. 총인원 200명에 한국여선교회원들이 약 40명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의 방향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 모였다. 이번 선교학교는 아틀란타 한인 연합 감리교회의 부목사이신 이상재 목사님께서 이틀 동안 수고해 주셨고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연약 공동체의 정의와 구체적인

실천 방향들을 묵상할 수 있었다.

매년 선교학교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사회문제들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여성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나 올바른 기독교 문화와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도전받고 있다. 함께 공부하던 40 여 명의 여선교회 회원들은 각자의 교회로 흩어지면서 내년을 또 기약했다.

(글: 김메리안사모, 북조지아 연합회 회장/ 랭귀지 코디네이터, 임마누엘 KUMC, GA)

> English

From July 21 to the 22nd, Mission u was held at Toccoa Baptist Church Convention Center in North Georgia. During these two days, 200 women gathered for Bible School, 40 of whom were Korean.

This Mission u was led by Sang Lee, Associate Pastor at the Atlanta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His lessons were titled "Living As Covenant Community." His message taught us what the Bible says and teaches regarding God's covenant towards Christians and how we as Christians are following His will.



Every year at Mission U, without fail, we learn about our role in the world as Christian women and how to deal with social issues as women of God. All 40 of us wait in anticipation for what we will learn during next year's Mission u!

(Written by Marian Kim, President of N Georgia KUMw Network and Language Coordinator of North Georgia)



델라웨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여선교회 선교학교를 다녀와서,

2007 본 교회 여선교회 회장을 하면서부터 전국연합회와 친근해졌다. 그 전에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모임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내수빌 전국연합회를 참석하면서부터,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Mission u 선교학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한 번도 기회가 허락되지 않아서 참석을 못 했다. 8월 5일 토요일에 에덴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합회 선교학교를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28 명의 적은 인원이 모인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나에게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는 선교학교였다.

최희덕 목사님의 언약공동체의 삶에 대한 강의로--- 오늘날 그 언약의 의미, 언약 안에서 사는 보람, 공동체 안에서 실천 사항들을 배웠다. 언어가 좀 어렵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준비하신 목사님의 강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한 감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주된 포인트는 이해하였지만----- 다소 바람이 있다면, 먼저 교재를 읽고 나서, 강의를 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두 번째 강의는, 점심 후에, 김명래 전도사님의 강의로, 미연합감리교회 선교연회들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호소력있는 열정적인 강의로 점심 후에 오는 식곤증도 몰아내는 감동적인 강의였다. 강의내용에 따르면, 'Red Bird 선교연회', 'Oklahoma Indian 선교연회', 'Alaska 선교연회' 등등이 소개되었다. 여기 소개된 선교연회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 있어 우리의 헌신과 도움의 손길이 어느 곳보다도 절실한 곳을 알려 주셨는데, 이 강의를 통하여, 또 다른 차원의 선교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다. 특별히 이번 선교연회를 소개함으로써, 특별히 미국 내에서도 선교의 손길이 열악한 선교 지역을 조명하여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비록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계획되어, 많은 것을 다양하게 배우기에는 충분치 못할 수도 있으나, 나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내 마음속에 선교 현장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글: 최영옥 권사, 델라웨어-볼티모어연합회 부회장, 델라웨어연합감리교회, DE)

> English

The New Picture of Missionary Scenes Drawn in Mission School

It was in 2007 that I began to contact the National Conference of United Methodist Women

For the first time, while I was serving as a UMW president of the Delaware KUMC. I had thought that the NNUKUMw Network had nothing to do with me until I attended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held in Nashville, but I discovered that I could be up to God's works wherever I was standing as a proud woman of faith. I had heard about Mission u, Mission School, etc. but had no chance to attend it.

For the first time, I attended the Mission School of the Delaware-Baltimore KUMw Network in the Eden United Methodist Church on August 5, 2017.

Regrettably, only 28 people attended, but the number was not important for me. The lectures in the Mission School were good enough to awaken and expand my spiritual boundaries. The first lecture was given by Pastor, Hee-Duk Choi about life of God's Covenant People.

I learned about the "meaning of God's Covenant in terms of today life," "meaningfulness in covenant life" and "concrete practice in the Covenant community." I think that her lecture seemed to be fully prepared for us, but it was a little difficult for a simple-minded person like me to understand because she was using a difficult terms throughout the lecture. Basically I could grasp her main point; I wish I had been given a chance to study in advance. After lunch, the second lecture was given by Myungrae Kim about the Annual Mission Conferences belonging to the United Methodist Church. Myungrae Kim's lecture was so passionate and influential toward us that we were not sidetracked into languidness after the meal. According to her lecture, there are a lot of Annual Mission Conferences



inside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Red Bird Annual Mission Conference," the "Oklahoma Indian Annual Mission Conference," and the "Alaska Annual Mission Conference." Myungrae Kim, introduced us to the 3 Annual Missionary Conferences to show us they are among the most demanding missionary scenes deprived of simple necessities. Through this lecture, I learned that even inside the United States, we have a lot of missionary scenes waiting for our devotion and helping hands. Now I realize that I've seen a different picture of missionary scenes. Even though this mission school was crafted to go only one

day, this Mission School was meaningful enough for me to understand the different missions in this country and the world.

(Written by Young O. Choi - Vice president of Delaware-Baltimore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Women Network, Delaware UMC)



종교개혁 500 주년: 여성, 평신도에게 길을 묻는다!



종교개혁자 마틴루터

95개 조항

사진출처 인터넷

부제: 종교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 들어가는 말

올해가 종교개혁 500 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세계곳곳의 교회와 기관들에서 종교개혁 500 주년에 대한 학술강연회, 세미나, 예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뉴욕의 후러싱교회에서 매달 첫주 수요일마다 종교개혁 500 주년을 기념하여 세미나를 갖고 계신데 이 행사에 평신도 여성의 입장에서 감사로 초대받아 이 자리에 서게되어 영광이다. 초청해 주신 김정호 담임목사님과 성도들께 감사를 드린다. 종교개혁 500 주년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평신도 여성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0년에 그의 저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에서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였다. 만인제사장설 교리는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두가지 성경구절을 인용했는데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베드로전서 2:9, 새번역)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28, 표준새번역)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였다. 이러한 만인제사장설은 개신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평신도들이 소명을 받아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기독교 역사 속에서 평신도 여성들의 사역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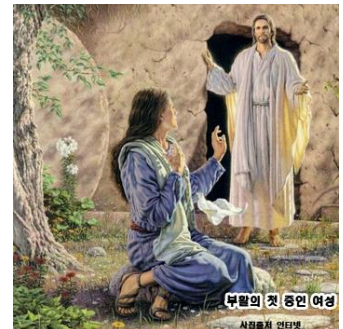
1. 구약시대와 여성들

구약시대는 강력한 가부장적 시대로 여성들에게 인간적인 권리가 없었다. 아버지나 남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가계를 이어주는 도구였다. 여성들은 인류타락을 시킨 악의 근원으로 취급되어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런 사회속에서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서 종교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것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 땅의 분배를 요구했던 슬로브핫의 딸들, 운명에 도전한 다말, 정탐꾼을 살린 라합, 민족을 구한 에스더, 바로에게 저항한 산파들, 아름다운 고부 간의 나오미와 룯등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2. 신약시대와 여성들

예수님의 시대에도 가부장적제도에서 오는 성차별이 극심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랜 전통으로 이루어진 풍습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에 파격적인 말씀과 행동으로 여성을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 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였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은 율법 속에서 정죄되며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여성들에게 자신의 설교를 받 아래서 듣게 하였고, 아브라함의 딸들이라 하며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만드셔서 사회에 복귀시켜 주셨다. 그래서 여성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예수님과 남자 제자들의 식사와 청소, 세탁을 담당하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당시 유대의 율법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구약시대의 여성들처럼 존재감이 없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면 여성과 어린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여성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따라 다닌다는 것은 당시 종교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것이었다.

12년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를 받은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혈을 하던 여인은 유대의 율법에 보면 불결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병을 고치려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은 그 여인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다. 유대남자의 겹옷을 일반 여성이 만지면 돌을 맞아 죽는 문화권에서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군중의 무리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결국 예수님은 그녀를 알아채셨다. 제자들과 성난 군중들은 그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며 그녀를 자신의 딸로 불러주셨다. 유대 풍습에 성인 남자의 옷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세사람이었다. 어머니, 부인, 아니면 딸이었다. 바로 예수님이 그녀의 아버지가 되어 딸로서 부르셨기에 어느누구도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다. 이렇게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회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많은 여성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끝까지 함께 하였고, 남자 제자들이 모두 숨어버린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가 확인을 하였다. 바로 종교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용감한 여성들이었다.



3. 초대 기독교와 여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때 여성들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파하였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제자들이 기도할때 여성들도 같이 있었고(사도행전 1 장, 14 장), 성령강림 사건에도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참여했다(사도행전 2 장). 예루살렘교회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종 로데가 있었으며, 옴바의 교회에선 다비다라는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디모데를 키운 어머니 유니게 등이 있었는데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자신들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가정교회를 주도한 여성들은 장소를 제공하여 예배를 인도하였으며, 목회적 돌봄으로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어냈다.

(사도바울의 동역자였던 여성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가려고 드로아에서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된다. 마게도니아 남자가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알고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도착한 곳이 마게도니아 지방(지금의 그리스)의 빌립보였다. 마침 안식일이어서 성밖 강가에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다고해서 찾아가더니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씀을 듣게된다.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큰 감동을 받은 루디아는 바울에게 자신과 집안 식구들이 모두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숙박을 하라고 제안한다. 바울은 고민했을 것이다. 환상에서본 사람은 남자였는데 만난 사람은 여성이었다. 당시 문화론 유대인 남자가 모르는 이방 여성의 집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역시 루디아도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바울을 초청하였고, 바울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녀의 집에 가서 거하면서 루디아를 유럽 최초의 첫 결신자로 얻게되었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다. 바울과 루디아는 종교와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사도행전 16:1-15). 이밖에도 바울의 사역에는 여성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유오디아, 순두게, 부리스길라 등 여성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여성들의 동역자로 참여한 것을 볼 수 있다.

1. 참고서적: 존 웨슬리: 성결한 마음과 삶을 위하여 (찰스 유리겐 Jr. 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2. 여성신학 이야기 (안상님 저, 대한기독교서회)
3. 한국 감리교회 여성교회역사 (이덕주 저, 감리교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4. 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 여성의 역사 (사라 에번스 저, 이화여대 출판부)
5. 아메리카로 가는길: 한인 하와이 이민사 (1896-1910), 늘녘 2002)

(글: 김명래 총무, 한인여성교회전국연합회)

*2017년 8월 9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에서 강의한 내용을 4번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 English



Protestant Reformation of 500 Years: Asking the Way from the Woman Lay Person!

Subtitle: Moving Beyond the Religion and Culture
(Myung Rae Kim, an Executive of the NNKUMw)

Introduction:

This year marks the 500 year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roughout the world churches and organizations are holding lectures, seminars, and worship to commemorate the 500 years since the reformation.

Every first Wednesdays of each month, the First UMC of Flushing holds seminars to commemorate the 500 years of the Reformation. I am honored as a woman layperson to be invited as a guest speaker on the topic.

I appreciate the invitation by the Pastor Chongho Kim, and by the congregation.

There are many meanings found in the reformation, but I would like to take the viewpoint of the woman layperson on the subject.

In 1520 German Reformer, Martin Luther wrote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and he proclaimed 'Priesthood of all believers'. It says that "every believer, whether the person is ordained or not, has direct access to God to worship and have fellowship."

Because God calls each of us as priests, Christians should respond to their calling in their various work places and careers. Martin Luther used following two scriptures: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own people, in order that you may proclaim the mighty act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1 Peter 2:9, NRSV)

"There is no longer Jew or Greek, there is no longer slave or free, there is no longer male and female; for all of you are one in Christ Jesus." (Galatians 3:28, NRSV)

Therefore all Christians are given their purpose in life by God, and they are equal in importance. Martin Luther also states that the only difference between Christians is their roles. So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gave much influence over the Protestant reformation, and also the laypersons can exercise their purpose in giving their grace and gifts and taking part in ministry for the church and society.

Looking at the Women Layperson's Ministry and "Her-story" within Christian History:

1. Women in the Old Testament

In Old Testament times, the patriarchal society was predominant and where women's human rights were greatly diminished. Women were treated as part of the father and husband's property, along with being an instrument for bearing the family's lineage. Women are not able to voice their rights because they were viewed as the ones who caused evil to come into the world through their involvement of the fall of humanity. Despite these societal conditions, women overcame the obstacles of religion and the cultures of that time. Although women couldn't voice their opinions, they created "her-story" in places that were not recognized: the daughters of Zelophehad exercised their rights to inherit property, Tamar challenged her life, Rahab who saved the Israelite spies, Esther who saved her people, midwives who went against Pharaoh's orders, and the beautiful story of the mother and daughter in law, Naomi and Ruth, and many others.

2. Women in the New Testament

During Jesus's time, there was sever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ecause of the largely patriarchal society. Even Jesus's disciples couldn't get out of the societal customs and mentality. During that time, through the radical teachings and actions of Jesus, women were elevated out of their oppressed status and treated as a full human being. We know that there are so many women of that time that were involved in the ministry of Jesus. Jesus allowed those women who were outcast and judged by the law to listen to his teachings at his feet. Jesus claimed the women who were outcast as "daughters of Abraham" and not only cured their physical illness but restored their mental state and allowed them to return to their community. So many women followed Jesus to help his ministry by cooking, cleaning, and washing clothes for him and for the disciples. During this time, the Jewish law did not recognize women's existence and rights like it was in the Old Testament. As we can see in the story of the "miracle of the five loaves and two fishes," the women and children were not counted in the number. The women living in that society could walk freely with Jesus and shows that they overcame the societal, religious, and cultural barriers.

We know the story of a woman who bled for twelve years and was cured by touching Jesus's cloak. In the law, this woman was unclean and treated as the sinner amid sinners. The last thing that she could do was to touch Jesus' clothes after losing all her wealth to cure her illness and was outcast by her family and her community. The last thing that she had to hope for was to touch Jesus' clothes although the culture at that time was condemnation by stoning to death for any woman who touched a man's cloak. Yet, she was determined to touch Jesus' clothing amid the crowd which led to Jesus recognizing her. His disciples and the angry crowd may not have accepted her behavior, but Jesus stated,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He called her his daughter.

There are only three people who can touch a man's clothing. They are, the mother, the wife, and the daughter. Right then Jesus was willing to be her father so that no one could stone her. Jesus not only healed the physical illness but restored her status to a normal person as a part of the community. Those many women who followed Jesus remained with him until his death on the cross. While Jesus' disciples were hiding after his death, it was the women disciples who visited the resurrected tomb. All who were mentioned in the Bible with names or without names were brave women who overcame the barriers of the custom, religion and culture of their time.



3. The Beginning of Christianity and their Women

Wherever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was proclaimed, the Women actively accepted Jesus and spread the message. The women were in the prayer meetings with the disciples at the Jerusalem church (Acts chapter 1 and 14). They were with men when the Holy Spirit came at Pentecost (Acts 2). The Jerusalem church had Jesus' mother, Mary, Ananias' wife Sapphira, Mark's (called John's) mother Mary and her servant girl Rhoda. There was a church called Joppa where a woman Tabitha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and there was Timothy's mother Eunice. We can see that the women have been working with the men to form a Christian community, where they dedicated their lives and were active participants in the process. There were women leaders of the home churches who opened their homes, led worship along with a ministry of care and they brought the community of faith in unity.

4. Women partners of Apostle Paul

Apostle Paul had a vision that he was in Troas and was ready to set out to the province of Asia.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standing and begging him,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s us," (Acts 16:9). After the vision, Paul concluded that God had called him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From Troas, he sailed to Phillippi (present day Greece), a part of the province of Macedonia. "On the Sabbath we went outside the city gate to the river, where we expected to find a place of prayer. He began to speak to the women who gathered there. One of those listening was a woman named Lydia, a dealer in purple clothing from the city of Thyatira, who was a worshiper of God," (Acts 16:13-14).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Paul's message. When she and the members of her household were baptized, she invited us to her home," (Acts 16:15). Paul might have had a troubled heart because he saw a man who was asking for help in his vision. But he met a woman who invited him to stay at her house for his ministry. The custom of the time was that a Jewish man never visits an unacquainted Gentile woman's house. Similarly, it was not easy for Lydia also. But, because of her faith she invited Paul to her home to stay and Paul accepted her invitation. As a result, Lydia was the first believer in Europe and established the first church in Europe called Philippi church. Paul and Lydia overcame the religion and culture at the time and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spreading of the Good News in Europe. Along with that, Paul had many woman ministry partners who were Euodia, Syntyche, and Priscilla, etc. We can witness that many women participated in Paul's ministry as he went on his mission trips.

(Written by Myung Rae Kim, Executive Director of NNKUMw)

Bibliography

- 1. John Wesley: 성결한 마음과 삶을 위하여 (Charles 유리겐 Jr. , UMW)
- 2. The Story of Woman Theology (Sang Nym Ahn, 대한기독교서회)
- 3. The History of Korean Methodist Women (Duck Joo Lee, 감리교회 여성교회 전국 연합회)
- 4. 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 여성교회의 역사 (사라 에번스, 이화여대 출판부)
- 5. The Road to America: The Korean Immigration History of Hawaii, 1896-1910, 늘녝 2002

* It will be presented in 4 series of a seminar on the commemoration of the 500 years of Reformation given on August 9, 2017 at the First UMC of Flushing.



한국여성교회 역사 - 어윤희



민족운동가 어윤희

개성의 독립 만세운동이 절정에 다다른 1919년 3월 3일 오후 2시, 감리교 여성 교인들을 이끌고 목놓아 독립을 외친 전도부인 어윤희. 너무도 위험하여 누구도 험사리 나서지 않은 독립선언서 배포를 자처한 그녀는 마침내 숨겨둔 선언서를 휘날리며 여성 교인들이 교회 밖, 세상을 향해 신앙을 넓히는 데 앞장섰다. 독립선언서를 직접 배포하며 개성의 만세 시위를 이끈 어윤희는 독립 만세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전도부인 어윤희는 1880년 충주에서 태어났다. 유학자인 아버지에게 소학을 배우며 성장한 그녀는 '말은 진실하고 신의가 있어야 하며 행실은 성실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소학의 글귀를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16세가 되던 해에 결혼을 하였는데 의병운동에 가담한 남편이 결혼 3일 만에 행방불명이 되는 불운을 맞게 된다. 이듬해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이후 1909년 개성에 정착한 그녀는, 나라를 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어윤희는 1909년 6월 13일 남감리회 개성북부교회에서 선교사 갬블(F. K. Gamble)에게 세례를 받은 후, 교육의 기회를 놓친 과부와 기혼여성들을 교육시킨 미리흥여학교에 입학하였다. 미리흥여학교 재학 중 일제강점기를 당하게 되자 어윤희는 '국권이 상실된 나라에서 사는 것은 죽음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낙담하며 자결을 결심한다. 그러나 기도 중, 죽음으로 고통을 피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국권을 찾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함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았다. 신앙 안에서 국권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더욱 개발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열정은 이후 호수돈 여학교 입학으로 이어진다. 1915년 3월 호수돈여학교를 졸업할 때 그녀의 나이는 36세, 이후 전도부인이 되어 25년을 교회 사역에 헌신하였다.

1919년, 전도부인 어윤희는 개성을 거점으로 인근 산간벽지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여성 교인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당시 3.1 운동의 민족대표들은 교회조직과 학교조직을 통해 3.1 운동을 지방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오화영 목사는 2월 26일 독립선언서 80여 매를 개성북부교회 강조원 목사에게 전달하였고 지하실에 숨겨 두고 배포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어윤희가 자진하며 나섰다. 국권을 되찾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그녀의 민족의식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순간이다.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개성 만세운동을 주동한 혐의로 어윤희는 경찰에 체포되어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는 중에도 감방의 동지들과 수차례 옥중 만세 시위를 주도하여 일제의 무도한 탄압과 모진 악형을 견뎌야 했다. 출옥한 이후에는 개성에서 전도부인으로 활동하면서 민족 계몽운동과 여성 교육에 헌신하는 한편, 독립운동 지원도 꾸준히 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의 밀사나 독립군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애국청년들의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던 그녀는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와 근우회 개성지회의 간사, 집행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어윤희는 선교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나이 58세에 여성교회의 파송을 받아 황해도 웅진반도 서남쪽에 있는 섬, 어화도에서 선교를 시작하였고 그곳에 부임한 지 1년 만에 교회가 설립되는 결실을 본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목회는 3년만에 끝을 맞게 되고 개성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유린보육원을 설립하여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월남하여 서울 마포에 보육원을 재건하고 복지사업을 20년간 이어간 '고아의 할머니' 어윤희, 82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3.1 운동의 제 34인으로 불리는 스코필드 박사(Dr. Frank W. Schofield)가 바친 추모의 글은 어윤희의 사랑됨의 넓이와 깊이를 잘 이야기해 준다.

" 우리는 모두 어 여사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젊은 날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바쳤으며 나이 들어서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고아들을 자신이 낳은 자식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작고 어린 육체 안에 사랑과 자기희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품고 있었습니다 ”

(글: 이미숙 집사, 전국연합회 역사부장, 베다니 KUMC, GA, / 자료: 한국여성교회 전국연합회 2017년 공과책)

>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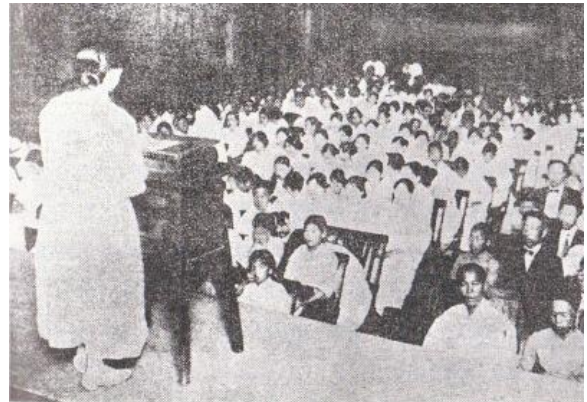


The Bible Woman, Yoonhee Euh, led the march of Methodist church women and cried out for independence on March 3, 1919, at 2 PM, when the Gaeseong Independence Movement reached its peak. She volunteered to distribut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lyers when no one would dare out of fear. She also led church women to spread their faith outside of the church. By distributing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lyers and leading the march, she became its central figure.

She was born in Chungju in 1880. She was raised by her father who was a Confucian scholar. Her father's teachings became her life-long motto: "honesty and trustworthiness in words and sincerity and attentiveness in behaviors." She married at the age of 16. Unfortunately, three days after the marriage, her husband who was in the military service became missing. When her father passed away the year after, her life became unbearably painful with no loved ones nearby. Then, she moved to Gaeseong in 1909 and embraced Christian faith with the hope to reclaim her country.

She was baptized by F. K. Gamble, a missionary, at the Gaeseong North Church of the Methodist Episcopal South on June 13, 1909. She attended the Mary Helm School where many widows and married women who missed their educational opportunities were educated. Unfortunately, during her time at the Mary Helm School, the country fell into hands of Japanese imperialism. She decided to take her own life out of despondency at one point, thinking that "living in a country where the national power was lost was no better than death." However, while praying, she realized that she should abide time and help the country to regain the national sovereignty instead of suicide just to avoid suffering. Her passion for restoring national sovereignty in faith led her to think that it should begin with improving herself more than anything. Eventually she enrolled at Holston Girl's School. She was 36 years old when she graduated from Holston Girl's School in March, 1915. She devoted herself to her church ministry for 25 more years after that.

In 1919, she traveled to different churches in the mountainous areas near Gaesong in order to educate female church members. At the time,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3.1 Movement had plans to spread it to the provinces by organizing churches and schools. On February 26, Rev. Whayoung Oh, one of the 33 na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delivered 80 copies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o Reverend Chowon Kang of the Gaesong North Church. And he was also searching for a person who would distribute more copies that were hidden in the basement. Yoonhee Euh volunteered to do the work. In conclusion, her national consciousness to help the Independence Movement motivated her to bravely face dangerous situations where the possibility of death outweighed the possibility of liberty.



Unfortunately, Yoonhee Euh was arrested on the charges of distributing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lyers and leading the independence march of Gaeseong. She was sentenced to one year and six months in jail. While serving her sentence in the Westgate prison, she led her inmates to independence march several times. At times, she had to endure harsh punishment by the prison guards. After discharge from the prison, she worked as a Bible Woman in Gaesong and devoted herself to the national enlightenment movement and educating women. She also helped the independence movement continuously. Her tireless work did not simply end there. She served as a facilitator of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and a guardian of the independence army by providing hideout. She did not hesitate to support the patriotic youths. She also actively worked as an executive officer for the Shingan Society and Gaeseong branch of the Geunwoo Society.

Yoonhee Euh also had a deep passion for missionary work. At the age of 58, she was sent to the island of Euhwado, southwest of the Ongjin Peninsula in Hwanghae Province as a missionary. With God's grace, a church was established within one year after her arrival there. Unfortunately, the church had to be closed in three years due to the Japanese imperialism. Knowing that she still had the potential to bear fruits with God's grace, she returned to Kaesong, established Yurin Orphanage, and began to care for orphans.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she went to Seoul and rebuilt the orphanage there, and continued the social welfare work for 20 years as 'the grandmother of orphans'. She was truly a woman of faith who devoted herself to ministries of church and her people until she passed away at the age of 82. The eulogy by Dr. Frank W. Schofield, called as the 34th member of the 3.1 Movement, describes well the extent and depth of her humanness. "We all love and respect Mrs. Euh. She sacrificed and gave everything she had for her country during her youth and faithfully served God until her death. She loved the orphans like her own children. In a slender and fragile physique, she had a great and beautiful soul of love and self-sacrifice." - A Tribute to Yoonhee Euh

(Written by Meesook Lee, chairperson of NNKUMw history, Bethany KUMC, GA / Resource is from 2017's Program book of Korea W.S.C.S)



독서프로그램



제목: "기록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여성교회와 나"

저자: 김옥라

출판사: 신앙과지성사

우리 중에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민을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 또 처음부터 감리교회에 다닌 사람도 있고,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리교회로 옮겨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다. 이 책을 쓴 김옥라 장로님은 '뽕속까지 감리교인'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다.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산골 마을에 나타난 한 미국인 선교사는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감리교를 이끌어가는 거목이 되게 하였다.

이 책은 한국 감리교회가 오늘날의 감리교회로 성장해 온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다. 변변한 이름조차 없던 한국의 여성들이 여성교회라는 단체를 통하여 리더십을 배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용감하게 이루어 낸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겨자씨 한 알이 지극히 작지만,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거목이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 듯이, 오지 산골 마을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세계로 자라나간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책이다.

비록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 겨자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글: 송은순 사모, 전국연합회 영성부장, 독서프로그램 위원장, 델라웨어 한인교회)

> English

Title: Unwritten history repeats itself- Methodist Women and I

Author: Oknah Kim Lah

Publishing: Faith an

History That Does Not Record Repeats Itself--Women's Ministry and I

Author: Kim, Okra

Some of us have had faith from Korea, and others have started to live in faith after they emigrated. There are also some who went to the Methodist Church from the beginning, and others who came to the Methodist Church from other denominations. Elder Kim Okra, who wrote this book, seems to be right in saying that she is a 'hardcore Methodist.'

An American missionary who appeared in the mountainous village of Gangwon-do, surrounded by layers of mountains, not only changed the life of a woman, but also made her a great leader to help lead the Korean Methodist Church.

This book is a record of the vivid history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as it is now. It is a book that records the lives of women in Korea who could not voice their opinions and gained leadership through a group called the Women's Missionary, and furthermore, accomplished the will of God courageously. Although one mustard seed is very small, that small seed grows into a giant tree and birds nest on the tree. This book details the seed of gospel as

it plants itself within the mountainous village of Korea and grows out to the world.
Even though we live in the United States, is there anyone who is not affected by the mustard seed?

(Written by Grace Song, NNKUMw Spiritual Growth Coordinator, Director of Reading Program Committee, Delaware KUMC)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4년차 대회



2018년 4년차 대회 안내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감리교 여선교회 대회가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서 2018년 5월 17-20일 까지 열린다. 이번 모임은 여선교회 150주년 모임으로 그 의미가 크다.

아래 편지에 있는 파랑색 온라인 주소를 누르면 등록할 수 있다.

올 2017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안으로 등록하시면 \$295.(2번 점심 식사와 워킹 포함)이며, 그 이후는 \$330.(편지로 등록할 경우 포함) *호텔은 각 연회에서 지정한 곳을 찾아 개인이 예약해야 한다.

*우분트 서비스데이 5월 17일 오전 9- 오후 3시 (\$60. 등록비 추가)

**장학금 신청은 12월 1일까지 온라인에서 다운 받아 할 수 있다.

***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편지는 여선교회장인 Shannon Priddy 에게서 온 글을 번역한 것이다.

여선교회 회원들께,

여성들이 단합하면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2018년에 열릴 4년 차 대회는 연합감리교회 여성회원, 새로운 친구,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21세기의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기 위한 포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150년의 역사 동안 조직하고 봉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여성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정의의 사역으로 우리 서로와 교회 지도자들 및 파트너들과 더 깊은 관계를 쌓으며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도전 받기를 기꺼이 원할 것입니다. 4년차 대회는 지역 사회 건설, 행동을 위한 훈련 및 미래를 위한 비전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세계 변화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서 2018년 5월 18-20일 동안 열리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4년차 대회에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년차 대회는 믿음의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제자훈련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제와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영감을 주는 연설자들, 실제체험 전시회, 집중 워킹 및 타운 홀 스타일의 회의를 통해 회원들은 대담하고 열정적인 150년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4년차 대회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은 주위의 한 사람을 4년차 대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부름에 응답 하시겠습니까? 등록은 2017년 9월 1일에 시작되며 조기등록 할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umwassembly.org에 가서 등록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SHARE 페이지로 가면 있습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Power of BOLD” Assembly in Columbus!
콜럼버스에서 열릴 "담대한 힘" 4년차 대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Sincerely,

Shannon Priddy, UMW President

> English



2018 Assembly Guide

Dear Korean UMW

When women unite, BOLD and courageous actions happen. Assembly 2018 will be a forum for United Methodist Women members, new friends and partners to gather, worship and learn about the needs of women, children and youth in the 21st century. We will be claiming our 150-year history as women who know how to organize and serve and are

willing to be challenged to grow in our faith as we build deeper connections with one another, church leaders and partners in the work of justice for all God’s children. Assembly will offer an incredible personal faith journey through community building, training for action and visioning a movement for the future. Bold and courageous ventures await us!

Join us in Columbus, Ohio at the United Methodist Women Assembly 2018, May 18–20, 2018, as we continue to be a unique movement for transformation in our church and the world.

Assembly 2018 will be a time for fellowship and opportunity to empower faithful women to be stronger discipleship leaders in their communities. Through moving worship, inspiring speakers, immersion experience exhibits, riveting workshops and town hall-style meetings, members will leave Assembly with the knowledge, courage and determination to change the world as part of a daring and compassionate 150-year-old movement. The Journey of Mary, mother of Jesus, will guide our spiritual reflections throughout the weekend.

I am **asking you to commit. Your call today is to commit to sending one person from your local unit to Assembly. Will you answer the call?**

Registration opens Sept. 1, 2017 with an early registration discount ending Nov. 30, 2017. Visit umwassembly.org to register. Go to the SHARE page for resources to help spread the wor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Power of BOLD” Assembly in Columbus!

Sincerely,

Shannon Priddy, UMW President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2011 전국훈련

1884년, 오하이오 연회 리벤나 지방의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원이었던 루시디아 볼드윈은 어둠 속에 살던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88을 지정헌금하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볼드윈은 소망을 잃은 한국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성경의 밀가루 반죽에 넣어진 누룩처럼, 한국여성을 향한 볼드윈의 헌신은 커다란 사랑이 되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1885년,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감리교 여선교사 매리 스크랜튼은 이 헌금으로 이화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절망 뿐인 한국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교육하였으며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여 여전히 영향력 있는 수많은 여성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루시디아 볼드윈과 매리 스크랜튼의 선교열매인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 한인여선교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1993년, 시작된 한인여성교회는 지난 23년간 여성교회원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양육해 왔으며 2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여성 목회자, 미국 여성교회 본부 회장 및 이사, 연회 및 지방회 임원 등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국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며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인여성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소망합니다!

2016년, 2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지도자훈련**을 통해 한인여성교회 회원과 2세 여성들은 함께 모여 나누고 배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전국지도자훈련을 위해서는 매번 6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한인여성교회 회원 한 사람이 2년 동안 \$1,000 불을 헌금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받은 여성교회 회원은, 1884년도의 우리처럼 어둠속에 살고 있는 전세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제 2의 볼드윈, 메리 스크랜튼이 될 것입니다. 한인여성교회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교의 새역사를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000 헌금 방법)

- . 매달 \$45 또는 1년에 \$500을 2년동안 전국연합회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 전국연합회는 501C의 비영리기관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Check 발행은 NNKUMW, 주소는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후원신청서 다운받기

자세한 문의는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 914-473-7401)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2017년도 후원자 명단:** 안용자, 김명래, 김리자, 이경신, 송은순, 이익화, 김순덕, 김영매, 서영애, 남가주 연합회, 북가주 연합회, 이한희

> English

“Easier if we do it together: \$1,000 fund raising for NNKUMw”

The National Network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has held the leadership training every two year since 1993. The last event was held in September in Nashville, Tennessee. The leadership training was made possible by financial support of the Women’s Division and donations from KUMW members. Many leaders who received training are currently working as pastors, officers at the jurisdictional and conference level, and Women’s Division board of directors. Many young Korean American women als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event.

The NNKUMw is a mission fruit of the UMW. Its dramatic growth has a beautiful story behind the faith in action of one UMW unit.

In 1884, Lucidia Baldwin, a member of the Ohio Conference, gave the designated offering of \$88.00 to be used to educate Korean women in Korea. She was having a difficult time after deaths of her husband, daughter and grandson all at the same time when she heard about the plights of Korean women. She sold her husband’s property and gave the offering to the Ohio UMW Conference. With this offering,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was able to send Mary Scranton as its first woman missionary to Korea and started Ewha School for Girls in 1885. She can be compared with the woman in the Bible who made the bread with yeast and shared it with her neighbors. We can say we are offspring’s of Mrs. Baldwin’s mission offering, so we owe her the debt of mission.

The members of the NNKUMw are learning, sharing, and growing together with the leadership training. We are doing our best to bear another mission fruit by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and the Bible Women’s Program abroad. To be able to achieve our goals, the leadership training plays a vital role.





Since 2007, the NNKUMw had the leadership training event without the support of the UMW National Office. We need \$60,000 for the 2017 national training event. We need your help. If many members of the NNKUMw donate \$1,000 over two years, the training event will be possible.

It is easier if we try together!

We can become another Mrs. Baldwin in spreading the good news of Christ to women, children and youth who are still living in the dark. We ask you to write a new chapter of mission history by enabling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to be the

tool to develop future leaders for Christ.

(Ways to donate \$1,000 mission fund)

2017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Yongja Kim, Myungrae Kim Lee, Lija Kim, Kay S. Rhee, Eunsoon Song, Ek Hwa Lee

Dorothy Kim, Young Me Kim, Young Ae Seo, Cal-Pacific KUMw Network, Cal-Nevada Conference KUMw Network, Han Hee Lee,

Monthly donation of \$45 or yearly donation of \$500 for 2 years

NNKUMw is 501c a non-profit organization registered with government. Your donation is tax deductible.

Send checks "Payable to NNKUMW,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ew York 11364

For more information: e-mail to mrkim81@gmail.com or call 914- 473- 7401

Copyright © 2008 www.nnkumw.org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All rights reserved.

한인 여선교회 연락처 :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전화 : 914-473-7401 •

메일 : members@nnkumw.org

발행인: 김리자 회장/김명래 총무/권오연 부총무/한글교정-안영숙/영문교정-Paul Lee/Web Master-김시춘